KOICA
한국국제협력단

WORLD FRIENDS KOREA

제1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World Friends Korea

사진공모전 작품집



〈 주제 : "World Friends Korea" 〉

- 개발도상국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인 사진 -
-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한국의 원조사업 사진 -
- 빈곤퇴치 및 MDGs 달성에 관련된 사진 -
- 기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진 -

제1회 KOICA 사진 공모전 작품집

인쇄 : 2010년 11월
발행 : 2010년 11월

발행인 : 박대원
편집인 : 한국국제협력단 홍보실

주소 : 461-8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18
TEL : 031-7400-114
FAX : 031-7400-655
홈페이지 : http://www.koica.go.kr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므로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KOICA
한국국제협력단

WORLD FRIENDS KOREA

제1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World Friends Korea

사진공모전 작품집



〈 주제 : "World Friends Korea" 〉

- 개발도상국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인 사진 -
-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한국의 원조사업 사진 -
- 빈곤퇴치 및 MDGs 달성에 관련된 사진 -
- 기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진 -

제1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World Friends Korea

>>> 사진공모전 작품집

목차

CONTENTS

4 인사말

6 심사평

10 최우수상

이정임 / 젖 먹던 힘까지

현장사업견학수기 / 한국국제협력단의 나눔과 실천

14 우수상

김수완 / 얼른 나을게요

현장사업견학수기 / 현장사업 견학을 마치고…

20 심사위원상

정경아 / 태권도

22 후원기업상

정영섭 / 웃음, 환희 그리고 눈물

이정민 / 희망 나누기

한명일 / 희망 그리기

이정미 / 나에게 꿈을 준 나라 라오스

박유진 / Hey! Friends~ We are pleasant children in Ethiopia

34 입선(DAC상)

강석일 / 지구촌 한마음 운동회

김소연 / 생명의 물, 희망의 물

김영원 / 더불어 함께

김율현 / 베트남 타잉회성 체육국의 열기

김준우 / 즐거운 야외수업
남윤우 / Difference is Nothing
박병원 / 더위야 가라~
박서아 / '한국'을 배우는 인도네시아 시골 마을의 초등학생들
박신영 / World Friends Koica
배용기 / World Friends Koica
신혜영 / World Friends Koica
안재규 / 힘바 아이들
엄태규 / 폐허의 땅에서 피어난 자비의 인술
오동준 / 눈높이 봉사
유미화 / 내 친구
윤성아 / 코이카와 함께 하는 아이들
은나래 / 아이들을 위한 한국 선생님들의 교육봉사
이두섭 / Incredible India
이신애 / 시골병원에서 만난 KOICA
장원록 / 예쁘게 그려주세요!!
정희숙 / 사랑의 집짓기
조규희 / KOICA, 다름을 넘어 태권도를 세계로
최은영 / 라오스 매래덱병원 의료봉사
홍정애 / 태권! 태권도!

58 KOICA 소개

60 심사 및 시상식

61 수상작 전시회

62 편집후기

인 · 사 · 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박 대 원

지난 2009년 11월 25일, 한국은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반세기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는 지난 50여년동안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얻지 못해 '원조피로' 현상에 잠겨있던 선진국에게는 개발협력의 성공모델이 되었으며, 가난과 빈곤의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개도국에게는 그들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한국의 OECD DAC가입을 기념하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제고하고자 전 세계 개도국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고귀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담아보는 「제1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사진공모전의 주제는 "은혜를 아는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195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67달러로 세계 최빈국에 속했던 한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고, 선진국 클럽인 OECD DAC에 가입한 것은 다른 나라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은 OECD DAC에 가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으며, 이제는 그동안 우리를 도와준 국제사회에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원조를 다시 국제사회에 되돌려 주어야 하되, 감사하는 마음과 "두손으로 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되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응모한 많은 응모작들과 입상작들은 과거 우리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개도국에 돌려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가득 담긴 사진들을 제출하여 금번 사진전의 의미를 더욱 가치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진공모전은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2,266개의 작품이 출품되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커다란 호응과 기업들의 아낌없는 후원이 있었기에 사진공모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진공모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세계시민으로서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며 성공적인 공모전이 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11월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박 대 원



심·사·평

'희망의 사진사'가 되시기를 바라며…



심사위원장 (사진작가)
성 남 훈

오늘날의 사회를 이미지의 사회라 한다. 이 말은 또한 많은 이들에 의해서 이미지가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그 중 사진은 전 국민이 즐겨 사용하는 소통의 도구이다. 그리고 그 소통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핸드폰에서 디지털카메라까지, 아니 웬만한 디지털 장비에는 사진기록장치가 내장되어 있다. 누구든 세상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 할 수 있지만 모든 사진이 가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많은 부분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젊음이라는 시간 또한 현실에 길들여진 측면이 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우리보다 어렵고 도움을 원하는 지구촌의 형제들에게 젊음의 시간을 사용하는 이타적 삶의 모습을 보기는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이번 심사를 맡은 제1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진 공모전 사진들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열정적으로 옮기는 아주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보인다.

세계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주로 촬영하는 필자 또한 그 어려운 곳에서 장기간 봉사를 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젊은이들을 만날 때 마다 부러움과 나태한

마음을 고쳐먹는 좋은 자극제가 되었다. 그리고 기회가 되어 이번 사진공모전을 통해 그들의 재능과 열정을 볼 수 있어 순위를 정하는 심사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진기록자로서의 동지의식에 더 큰 즐거움이 앞섰다.

특히 올해 출품된 사진의 큰 특징은 봉사의 현장을 직접 경험한 이들의 체험적 기록 행위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빛났다. 수단이 목적을 넘어 설 수 없이 봉사를 전제로 한 사진기록은 순수한 열정과 대상에 대한 상호신뢰와 애정이 넘쳤다.

우리 같은 사진기록을 전제로 한 결과에서는 느끼기 힘든 아기자기한 감동으로 가득하다. 사진 안에 미학이 조금 부족하면 어떠한가? 젊음의 열정과 신념이 가득하고 사진에 기록된 대상이 전하는 희망의 외침이 가득한데 말이다. 부끄러운 것은 사진을 분석하고 순위를 정하는 나 자신이다. 어쩔 수 없이 세속적 잣대로 이번 출품된 사진에 순위를 정했지만 출품자 모두의 신념에 열혈한 박수를 보낸다.

좋은 사진이란 사진가의 고도로 훈련된 테크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사진의 대상에 겸허히 다가갈 때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보너스이다.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을 우리는 카메라라는 도구를 통해 담아내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좋은 사진을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국국제협력단(KOICA)관계자 여러분과 같이 참여한 여러 심사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모든 출품자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의 사진 한 장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희망의 사진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멋지십니다.

2010년 11월

심사위원장 성 남 훈

최우수상 · 우수상

- 최우수상 / 이정임
- 우수상 / 김수완






KOICA

작 품 명 젖 먹던 힘까지

촬영국가 세네갈

작품설명 따갑게 내리쬐는 햇볕, 그 아래 마주 선 우리 사이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양손에 불끈 움켜쥔 줄에는 벌써부터 땀이 묻어나는 것 같다.
긴장감 속에서 하나, 둘, 셋! "삑~~~~~"
선생님의 휘슬소리에 드디어 젖 먹던 힘까지 쏟아붓는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줄은 이쪽으로 조금 끌려왔다 다시 저쪽으로 끌려가고 문득 '아~오늘 아침에 밥을 더 먹고 오는 건데' 하는 아쉬움이 밀려든다.
이마 위로는 땀이 송글송글 맺히지만 아이들은 지칠 줄 모르는 것 같다.
"영차 영차" 이렇게 하나로 힘을 모을 때면 세네갈과 한국이라는 그 멀고도 먼 거리도, 언어의 장벽마저도 사라지는 느낌이다. 다시 한 번 "삑~~~~~"소리에 줄다리기는 끝이 났다.
줄다리기의 결과는? 난 그저 멋쩍은 웃음만 지을 뿐이다. 꼬레선생님이 우리 편이라고 좋아하던 아이들에게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다음엔 선생님이 꼭 밥 두 공기 먹고 올게!'
세네갈의 수도에서 3~4시간 떨어진 지역 Kaolack에 위치한 Case des tout-petits Touba Ndoron. 이 곳은 한국의 유치원과 비슷한 곳으로 5~7세까지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 나와 함께 줄다리기를 한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제일 큰 형님 7세반 아이들이다. 항상 밝은 웃음으로 반갑게 맞아주는 고마운 친구들이다.
유치원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수업재료도 턱없이 부족하고 더위와도 싸워야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소박한 즐거움을 찾는다.
우리가 당기는 이 줄의 끝에는 아름다운 미래만이 가득하기를 기대하면서….

한국국제협력단의 나눔과 실천

최우수상 **이정임**

'세계 속에서의 KOICA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봉사단원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을까?'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

한국국제협력단 제1회 사진공모전의 수상으로 인해 5박 6일간 탄자니아 현장사업을, 3박 4일간 세네갈 현장사업을 견학하게 된 것이다. 물론 나는 현재 세네갈에서 봉사단원으로 활동 중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이 듣고 보고 느꼈지만, 이번 견학을 통해서 그 동안의 나를 돌아보고 다른 현장사업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했다. 동아프리카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탄자니아와 서아프리카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세네갈. 이제 아프리카와 함께 살아 숨 쉬는 한국국제협력단을 만나러 갈 시간이다.

탄자니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예전에 한국에서 이 곳 먼 아프리카까지 떠나올 때의 두려움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막연히 아프리카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 수원국에 대한 오해들을 버리게 된 것은 내가 봉사단을 하면서 얻게 된 또 하나의 값진 교훈이라 할 수 있겠다.

드디어 길고 긴 비행 끝에 탄자니아에 도착!

먼저 협력단 사무소분들을 만나 탄자니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 속의 KOICA에 대한 소개를 들었는데 현재 100여명이 넘는 봉사단원이 파견되어 있다고 하셨다. 이 많은 수의 청년들이 '함께 더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니 협력단의 규모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탄자니아에서의 현장사업 견학은 협력단 사무소가 있던 Dar Es Salaam에서 비행기를 타고 20분정도 떨어진, 인도양이 아름답게 펼쳐진 Zanzibar라는 섬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곳에는 봉사단원 8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시내를 돌아다닐 때면 코리아를 외치거나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 낯선 땅에서도 '안녕하세요' 라는 소리를 들으니 왠지 남모를 감동이 밀려왔다.

단원들의 안내를 받고 The State University of Zanzibar라는 공립대학과 Lumumba Secondary School라는 공립학교를 방문하였는데 어디에서건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다.

공립대학에서는 사서분야로 파견된 박예진 단원의 소개로 도서관을 둘러보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양의 책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도서관을 돌아보다 한 쪽에 위치한 2006년에 문을 연 American corner를 보게 되었다. 아메리칸 코너는 도서관에 미국의 정치, 사회, 교육, 문화등 미국에 관한 실제적인 정보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여 타국 국민들과의 상호협력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파트너쉽 프로젝트이다. 그걸 보면서 잠시나마, 언젠가는 그 옆에 코리안 코너도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에 젖어들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 그들의 입에서 한국말이 튀어나오고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런 날이 머지않아 꼭 오리라고 기대해본다.

공립중등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사진, 학생들까지도 학교에 대해 가지는 대단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 매년 시험을 통해 인재만을 뽑다보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움을 위해서 친척집, 친구집에서 지내며 학업을 이어가는 모습에 탄자니아의 미래가, 더 나아가 세계의 미래가 이들 때문에 밝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교장선생님의 '한국 봉사단원들은 매우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씀에 역시나 우리의 성실함과 재능은 어디에서나 인정받는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다.
현장사업 외에 탄자니아의 문화를 경험해 보기도 하였는데 노예시장 탐방, 아름다운 밤바다가 펼쳐진 곳에 맛있는 것까지 가득한 야시장 둘러보기, 각종 향신료와 열대과일을 볼 수 있는 Kizimbani Spice Tour를 하였다. 여기에서 내가 지금껏 살면서 가장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열대과일을 맛 본 것 같다.
눈도 입도 마음도 즐거웠던 탄자니아견학을 마치고, 세네갈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마치 고향이라도 돌아가는 듯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다. 정말 이제는 세네갈이 내 제2의 고향이지 않을까 싶다. 세네갈에 도착해서는 먼저 사무소의 안내를 받고 다음 날 서아프리카의 노예시장이었던 고레섬을 둘러보았다. 탄자니아며 세네갈이며 지금은 노예시장이 관광지로 개발되어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그 아픈 역사를 느끼다 보면 가슴이 아려오곤한다.
고레섬에서의 아픈 마음을 뒤로하고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 수도에서 3~4시간 정도 떨어진 Kaolack으로 향하였다. 한국의 유아교육청과 비슷한 기관으로 기관장님과의 면담을 갖고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 유치원을 방문하였다. 현재 유치원은 우기가 시작되어 방학기간 중인데도 며칠 전 방문을 요청하였더니 흔쾌히 승낙하여 주셨다. 이 날도 비가 많이 와서 땅 곳곳이 잠긴 곳이 많았는데, 한국인 선생님들을 만나겠다며 찾아와준 아이들이며 현지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기관방문을 마치고 다시 수도로 올라오는 길에는 장미호수라고도 불리는 Lac rose를 들렸는데 염도가 매우 높은 호수로 피부병 치료로도 유명한 곳이다. 염도가 매우 높아 물에 들어가면 둥실둥실 뜰 수 있고 물 밖으로 나오면 마치 꿀통에 빠졌다 나온 착각이 든다. 맑은 날 낮에는 호수가 붉은 빛으로 보인다고 하여 장미호수라고 불리고 있다.
세네갈의 수도인 Dakar에 와서는 국가대표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태권도 연습현장과 Centre de sante라는 보건소를 둘러보았다. 태권도 분야는 세네갈에 전파사범이 보내지고 더욱 활성화되었는데 겨루기부문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하는 값진 성과도 얻어내었다. 세네갈에 울려 퍼지는 태권도 함성소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한국의 자랑이자 같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충분히 느끼게 해 주었다. 보건소에서는 병원 시설을 둘러보고 간호분야 단원의 진료현장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백의의 천사라는 말이 어울리게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지만 병원에 아직도 많은 물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해야겠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게 해 준 현장사업 견학은 9일간의 일정으로 아쉽지만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난 생각한다. 아직 현장사업 견학은 끝이 나지 않았다고...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쭉 계속 될 것이라고.
이번 현장사업 견학을 통해 그 동안에도 느끼긴 했지만 협력단 봉사단원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어떤 나라이건, 어떤 기관이건 우리를 반가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모습에 그들과 함께하는 봉사단원들의 노력이 얼마나 컸는지 느낄 수 있었다. 마음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자랑스러웠다. 또한 이제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한국,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도 자랑스럽다.
낯선 이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뻗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달리는 것!
그것이 나의 목표이고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기쁨이다.
이 기쁨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바래본다.


KOICA
KOREA

작 품 명 얼른 나을게요

촬영국가 에티오피아

작품설명 이 날도 어김없이 현재 활동 중인 기관 나자렛 병원으로 출근했다. 이곳은 나자렛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접근성이 용이한 반면 정부 병원으로서 지원받는 부분이 미흡해 시설이나 모든 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의 보조를 받아 무료로 치료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카메라가 귀한 이 나라에서 사람들과 보다 빨리 친해지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사진을 찍어주고 인화한 사진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카메라를 들고 동료와 찍기도 하고 환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사진을 찍으며 아픔을 공유하곤 한다. 그들은 사진 한 장에서 또 다른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더하여 보람을 느끼고 그 모습을 대신 추억으로 간직한다. 소아과 병동에 입원중이었던 이 아이는 평소에도 웃음이 많던 아이다. 부모 곁에 떨어져 있는 것을 싫어하지만 유달리 나를 잘 따랐던 아이였다. 장염을 앓고 있었던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비교적 간단한 질병을 치료중이었지만 이 역시 작은 몸이 감당하기엔 힘들었을 테다. 쓰디 쓴 약을 먹고 울음을 터트린 아이를 달래주려고 번쩍 안자 바로 울음을 그치고 웃어버린다. 그 웃음이 나를 웃음 전염병에 걸리게 만들었고 아이와의 따뜻한 포옹이 나를 행복의 길로 전도시켰다. 한국에서 간호사의 길을 3년간 걸었던 나는 사람중심으로 일을 하기보다 일 중심으로 사람을 대했었다. 바쁜 업무 부담이 컸던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환자이기 전 같은 인간이라는 감정이나 생각을 배제했던 것 같다. 아픈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임을 잠시 망각했던 모양이다. 비록 어려운 나라에 와서 작은 손길이 미미하게 더해지고 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가고 있다.

오늘도 이 곳 에티오피아는 덥고 모래 바람이 심하게 날리는 그야말로 짜증나는 하루이다. 그래서 난 지금 서랍 속에 있는 그 아이와의 사진을 펼쳐 보며 또 다시 자세와 마음을 바로 잡고 있다.

현장사업견학을 마치고…

우수상 **김수완**

이번 제1회 KOICA 사진 공모전에서 받은 '우수상' 이란 내게 봉사자로서 채찍질을 던져준 것과 같았다. 예상대로라면 수상자 나라(세네갈, 에티오피아)를 견학하는 것이었지만 현재 에티오피아 대통령 선거 이후 치안을 고려하여 세네갈, 탄자니아를 방문하게 됐다. 총 7박 9일 일정 가운데 탄자니아 4박 5일, 세네갈 3박 4일로 제법 타이트하게 짜여진 일정이었지만 알차고 즐거웠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겠다.

밤 12시경에 탄자니아에 도착하여 한인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밤을 보냈고 새벽 7시 반 잔지바르 섬에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5시에 나가야만 했다.

아름다운 잔지바르 섬에 도착하니 나도 모르게 피곤함은 그저 사치에 불과했다. 잔지바르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코이카 단원 '박예진' 이었다. 서저로 활동하고 있는 박 단원의 기관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The State University of Zanzibar. 약 800명 학생이 있는 이 곳 국립전문대 안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박 단원. 이 곳의 총장이 현재 잔지바르의 대통령이란다. 학생들의 도서검색을 돕고 레포트나 시험에 필요한 부분의 책을 추천해주고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박 단원. 현지 코워커 들과 2교대로 일하여 평일에는 늘 이곳에 있단다.

오후엔 'Prison Island' 로 향했다. 프리즌 섬은 옛날 흑인 노예무역을 한 섬으로 엄숙하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까지 갖춰진 섬이었다.

저녁엔 Forodhani Park 야시장에 가보았는데 각종 해산물, 과일 등 먹거리들로 볼거리가 대단했다.

이튿 날 노하예진이 활동하고 있는 기관 Lumumba Secondary School에 방문했다. 현재 생물과목 선생님으로 활동하는 노 단원. 학생들을 가르치랴 고생이 많은 듯 했다.

이 날 오후엔 Kizimbani Spice Tour를 했다. 길고 넓게 펼쳐진 농장인데 없는 게 없었다. 각종 야채부터 열대과일까지 다양했다. 하나하나 보고 맛보는 체험의 재미가 쏠쏠했고 '버터플라이' 라 불리는 나무 타는 사나이의 쇼가 있었다. 두 발목에 끈을 연결하여 올라가기 쉽게 고정시킨 뒤 아무 안전 장치 없이 그대로 50미터 가량 되는 코코넛 나무로 서서히 올라갔다. 중간 중간 아슬아슬한 그의 연기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졸이며 즐기게 했고 '하쿠나마타타' 가 들어간 노래를 부른 그의 목소리는 드넓은 농장에 울려 퍼졌으며 인원수에 맞게 따 준 코코넛을 먹기 좋게 다듬어 준 그의 칼 솜씨 또한 일품이었다. 무척이나 신선하고 시원한 코코넛의 오리지널 맛을 느낄 수 있었던 날이었다.

해가 질 무렵 북쪽의 바다로 향했다. 1시간 정도 달려 도착했는데 이 곳의 이름은 Kwendwa Kendwa Rocks 인데 정말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있었고 아울러 노을까지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발가락 사이로 고운 산호모래가 들어오는 느낌이 발의 웃음을 자아냈고 시간이 멈추길 바랄 뿐이었다.

어쨌든 탄자니아에서의 좋은 경험과 기억을 안고 세네갈로 가는 길도 기대에 부풀었다. 다시 케냐에서 경유를 하고 세네갈로 가는 다카르 비행기에 올랐다. 장시간 비행이었다. 탄자니아에서 케냐까지 2시간, 경유 3시간, 케냐에서 다카르 10시간. 총 15시간이라는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다카르 도착이다. 도착하니 시차 3시간이 느려 오후 1시 30분이다. 날씨가 무척이나 습했다. 그리고 온 도시가 안개로 뒤 덮혀 있었고 거센 파도, 깎여진 모래사장, 흙먼지, 나무나 산을 보기 힘들었고 거의 온 건물은 모래 색과 같았다. 어쨌거나 나의 첫 세네갈 여행기의 느낌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황색' 이었다.
시내 중심 한국 식당 앞에 위치한 호텔에 짐을 풀었고 일행과 함께 시내투어에 나섰다. 서부아프리카 사람들은 동부지역보다 키가 훨씬 크고 골격도 컸으며 피부색도 까만색이었다. 이 날 저녁은 한식당에서 매주 토요일만 하는 한식 뷔페를 즐겼고 오랜만에 먹어보는 생선 초밥도 원한없이 먹을 수 있었다.
세네갈에서의 둘째날. 아침을 먹고 3시간 떨어진 '까올라' 지역으로 향했다. 세네갈 수상자인 '이정임' 의 기관에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잘 닦여진 도로를 가다 반 이상은 군데 군데 움푹 패인 도로를 가느라 현기증이 나기도 했지만 결국 잘 도착했다.
유아교육 단원인 이 단원은 이 곳에서 각 유치원으로 물품 공급, 교재마련, 교사관리, 수업점검, 세미나를 위한 공고문 제작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남은 시간을 스스로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 바로 그 곳의 유치원도 방문을 했다. 총 나이별로 4개의 반으로 한 반에 40~50명 정도가 있던 그 곳은 7명의 선생님과 이 단원이 있었다.
이 날 오후에는 Lake Rose(락코즈)라 불리우는 곳으로 향했다. 붉고 바다보다 짜서 몸이 저절로 뜬다는 호수. 빨리 가보고 싶었다. 정말이지 신기하게 물속에 들어가니 몸이 저절로 떴다. 바닥은 거북할 정도로 미끄러웠고 물은 정말 붉었다. 옆으로 누워도 보고 엎드려 봐도 뜨는건 마찬가지였다.
저녁엔 다시 수도로 올라가 국가 대표팀을 맡고 있는 태권도 단원의 기관에 방문했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태능선수촌인 그 곳엔 시합을 앞두고 긴장된 분위기가 절로 느껴졌고 그 들의 땀과 열정에 내부가 후끈 달아올랐었다.
드디어 여행의 마지막 날. 수도에 근무하고 있는 '이정래' 간호단원이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에 향했다. 소아과 외래에서 근무하는 이 단원은 유창한 현지어 실력과 아기들을 잘 다룰 줄 알았다. 기관 투어를 서둘러 마친 뒤 마지막 점심을 함께하고 이 날 다시 에티오피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야만 했다. 짧은 일정에 아쉬움도 많이 남았지만 평생 못 잊을 시간이었다.

후원기업상·심사위원상

- 심사위원상 / 정경아
- 후원기업상(신한은행) / 정영섭
- 후원기업상(아시아나) / 이정민
- 후원기업상(웅진코웨이) / 한명일
- 후원기업상(포스코건설) / 이정미
- 후원기업상(SK C&C) / 박유진













작 품 명 태권도

촬영국가 인도네시아

작품설명 대학교사회봉사협의회와 월드프렌즈가 주최하는 단기 해외봉사활동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인도네시아 반둥에 있는 시르나사리 초등학교에서 약 일주일간 한국어교육, 벽화그리기와 문화교류를 통해 아이들과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문화교류 시간에는 태권도교육을 비롯하여 시물놀이, 최신댄스, 현지 아이들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작품은 태권도 교육시간의 모습이며, 아이의 모습이 역동적이고 예쁘게 나왔습니다.



작 품 명 웃음, 환희 그리고 눈물

촬영국가 네팔

작품설명 처음 그들을 만날 때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맞이하던 아이들이 떠오릅니다. 친밀감을 나누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열린 마음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이미 오랜 친구처럼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웃고 장난이 시작됩니다.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붉은 피를 가진 똑같은 인간이었고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뭉친 지구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선의에 가득한 표정 때문에 사진을 찍는 내내 그 어떤 거부감도 또 가식적인 자세나 표정을 요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매 순간이 아름다운 포즈였고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가 제3국의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나누어주고 베푼다는 생각보다는 서로 서로 마음을 주고 받는다는 느낌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준비와 문화, 종교의 이념적 차이로 서로를 죽이는 사건들로 가득하다지만 손에 손을 잡고 하나 되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은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들의 손을 굳건히 잡고 평화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작 품 명 희망 나누기

촬영국가 피지

작품설명 2009년 여름,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은 피지의 나세이비투 마을에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휴양지로만 알고 있는 피지는 사실은 국민의 대다수가 극빈층의 삶을 살고 있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간 이 마을도 전기나 상하수도 시설 같은 기초시설조차 보장되지 않은 원주민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열일곱명의 사회봉사단원들은 피지의 해비타트 단체와 함께 산골 오지마을에 작은 집을 지어주었고 2주간의 시간동안 이들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렇다 할 장난감도 없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준비해간 프로그램들이 무척 즐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크에서 협조받은 한국 소개 물품을 전시하여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윷놀이, 제기차기, 물로켓 등의 게임도 즐겼고 족구네트와 농구골대도 설치하여 마을 사람들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공기방울 놀이도 이 곳 아이들에게는 신기한가 봅니다. 세제를 물에 풀어 공기방울을 보여주니 어찌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공기방울을 잡으려고 깔깔거리고 뛰어다니던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이 기억이 납니다.


Library of Hopeful
Seed in Laos
30 June 2009~15 July 2009

작 품 명 희망 그리기

촬영국가 라오스

작품설명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매년 방학기간동안 파견되는 단기 봉사단원 활동은 라오스 위앙캄지역에 있는 사이쿤 초등학교의 희망도서관 개관 및 벽화작업, 초등학교의 전반적인 개·보수 프로젝트 사업으로 총 4개의 교실 중 첫 번째 교실은 희망도서관으로 꾸미고 나머지 세 교실은 도색과 정비 활동을 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후끈한 기후라서 작업 시작과 동시에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페인트 냄새에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희망도서관이 열리자 아이들은 삼삼오오 무리지어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도서관을 가득 채운 아이들을 보며 우리가 준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은 '희망'이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라오스에 심어놓은 아주 작은 씨앗들로 인해 이 아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큰 나무로 무럭무럭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작 품 명 나에게 꿈을 준 나라 라오스

촬영국가 라오스

작품설명 라오스 루앙프라방 펀싸이 초등학교에서의 교육봉사 활동중 '생활에서 발견하는 과학놀이' 시간에 실전화를 만들어 아이와 함께 실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OIC
WORLD'S

작 품 명 Hey! Friends~ We are pleasant children in Ethiopia

촬영국가 에티오피아

작품설명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았지만 이제 너와 나는 하나의 세상에서 나누고 섬기며 때로는 같은 꿈을 꾸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

(에티오피아 나자렛 5번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기획/운영)

입선(DAC상)

- 강석일
- 김소연
- 김영원
- 김율현
- 김준우
- 남윤우
- 박병원
- 박서아
- 박신영
- 배용기
- 신혜영
- 안재규
- 엄태규
- 오동준
- 유미화
- 윤성아
- 은나래
- 이두섭
- 이신애
- 장원록
- 정희숙
- 조규희
- 최은영
- 홍정애













작 품 명 지구촌 한마음 운동회

촬영국가 케냐

작품설명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와 사단법인 월드쉐어가 함께한 대학생 아프리카 케냐 봉사 활동 중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약 한 시간 떨어진 키바가레라는 빈민촌을 방문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아이들과 함께 소규모 운동회를 개최하였다. 당초 200여 명의 아이들을 초청했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구름과 같은 인파가 몰렸다. 그야말로 동네 잔치가 된 것이다. 그곳에 모인 아이들에게 페이스 페인팅과 요술풍선 왕관만들기를 하며 시작한 운동회, 준비한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열악했지만, 함께 뛰어다니는 것만으로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함께 감사가 넘쳤다. 우리들과는 환경과 생활습관 등 모든 것이 다르지만, 서로에 대한 진심은 통하였으며, 짧았던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의 마음의 벽을 허물기에 충분하였다.
우리의 작은 수고와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반 년이 지난 지금에도 내 마음속 한 구석 깊이 남아있는 좋은 추억이었다.



작 품 명 생명의 물, 희망의 물

촬영국가 캄보디아

작품설명 캄보디아 시골 마을(깜봇주 크나이)에는 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우기에는 빗물을 큰 항아리에 받아 식수로 사용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소와 돼지, 오리가 마음대로 드나들던 웅덩이 물을 항아리에 받아 놓았다가 사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배앓이를 하곤 했습니다. 한국에서 설치해 준 우물 덕택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건기 때마다 시달리던 배앓이와 피부염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정도 '모이 떡(물을 끼얹으며 씻는 행위를 일컬음)'을 할 때면, 더위와 함께 근심걱정도 잠시나마 사라집니다.
'우물 한 동'에는, '우물 한 동'에 차마 다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한 내일이 달려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아이들이 희망찬 내일을 꿈꾸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죠?



작 품 명 더불어 함께

촬영국가 스리랑카

작품설명 한동대학교 친구들 4명과 함께 "스리랑키 중부산지 학교 현장 리서치"를 떠났다.
약 20일의 시간 동안 3개의 교육청과 8개의 타밀족 학교와 3개의 싱할리족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학교교육 현장 리서치를 주로 하되 리서치 이후에는 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준비해간 춤, 노래, 차력, 사물놀이 등의 문화활동을 선보였다.
이 사진의 학교는 11개 학교 중에 마지막 리서치 학교로서 2000명이 넘는 매우 큰 타밀족 학교였는데 우리가 준비해 간 장비로는 그 넓은 장소에 많은 학생들에게 보여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지만 우리의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그런 우리의 진심이 통했는지 겉모습은 다르고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맑고 순수한 그 아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작 품 명 베트남 타잉화성 체육국의 열기

촬영국가 베트남

작품설명 "Trong Tae Won Do quan trong nhat la gi?"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라는 선생님의 물음에 "Lich su!" (예절)이라고 선수들이 대답한다. 김병은 단원은 비단 태권도뿐 아니라 태권도 속에 녹아 있는 대한민국를 가르치고 있었다.

본 작품은 베트남에서 태권도 분야로 활동중인 김병은 단원이 타잉화성 체육국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다. 타잉화성 체육국에는 가라테, 배구, 베트남 전통무술, 태권도 분야 등이 있다. 태권도를 배우는 선수들은 약 20명이 있는데 그 중 절반 가량이 여성일 정도로 남녀를 불문하고 태권도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 다른 소녀들과 다를 바 없이 쉬는 시간에는 수다를 떨며 수줍게 웃던 모습은 사라지고, 힘찬 기합소리와 함께 주먹을 내지르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였다. 사진을 찍으러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선수들의 진지한 시간을 방해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조심스레 셔터를 눌렀다. 잦은 정전과 더위로 힘든 상황 가운데 훈련하지만, 대회를 앞두고 KOICA에서 지원한 도복은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에 충분했다. 대회에서의 메달 색깔은 다를 지라도 이들이 흘리는 땀의 색깔은 같다.



작 품 명 즐거운 야외수업

촬영국가 르완다

작품설명 르완다 세인트빈센트 고등학교에서 ICT 교육봉사를 하고 있는 최승백 해외봉사단원의 강의 모습입니다.
우기 중에 오랜만에 맞는 화창한 날을 기념하여 특별한 야외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웹캠으로 사진 촬영 및 편집하기이며, 코이카의 지원으로 마련한 넷북으로 즐거운 수업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거운 실습 수업으로 학생들의 표정이 아프리카의 밝은 햇살처럼 환하게 빛나고 덩달아 지도하는 봉사단원의 마음도 더욱 보람찼습니다.



작 품 명 Difference is Nothing

촬영국가 튀니지

작품설명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수체육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원의 모습을 튀니지 내 활동기관에서 촬영하였다. 봉사단원은 현재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의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함께 훈련하는 선수들은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단원과 현지 선수들이 함께 하는 모습에서 신체의 다름을 포함한 인종, 국적의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에 그들이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며 함께 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보았다.



작 품 명 더위야 가라~

촬영국가 라오스

작품설명 저는 라오스 수도 위엥짠에서 2년째 국제협력의사로 국립모자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박병원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라오스 협력의사 및 봉사단원들과 라오스 현지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과 같이 정기적으로 라오스의 의료환경이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이동진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동 진료를 다니다 보면 의료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는 지역도 라오스 전역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인성 질병으로 많은 라오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진을 촬영한 곳은 라오스 수도 위엥짠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위엥짠주내에 나닌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저희는 주로 학교나 절(불교 국가라서 마을마다 절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에서 이동진료와 위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KOICA에서 수도사업을 지원해준 학교에서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정신 없이 마치고 잠깐 쉬는 도중에 동네 아이들이 새로 만들어진 수도에서 즐겁게 노는 것을 보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기간은 라오스에서 제일 더운 기간 중 한때라 라오스 사람들도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물총이나 호수로 물을 서로에게 뿌리는 삐마이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수도 사업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작 품 명 ‘한국’ 을 배우는 인도네시아 시골 마을의 초등학생들

촬영국가 인도네시아

작품설명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남단의 작은 도시, ‘메트로’에서 나는 KOICA 봉사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마트라는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유명하지만 내륙에 위치한 ‘메트로’는 다행히도 지진의 피해와는 거리가 먼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놀랐던 것은 이런 한적한 시골마을에도 한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류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한국에서 온 봉사단원인 나에게 보이는 주민들의 관심도 매우 컸다.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한국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은 내가 받는 관심과 더불어 점점 커지곤 한다. 나의 수업 중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수업은 ‘한국노래 배우기’이다. 이 사진을 촬영한 날은 ‘아리랑’을 배웠는데, 한국어가 어려웠는지 모두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까지만 완벽하게 소화해 낸다. 그리고는 ‘고우개애로우~’하며 늘어진 테이프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아리랑을 흥얼거리는 모습이 기특하고 고마웠다. 그러나 아이들이 한국에 갖는 뜨거운 관심과는 다르게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아이들과 처음 만난 날 나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모두 같은 언어와 문자를 쓰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 질문이 계기가 되어 한글 알리기의 일환으로 사진 속 한글 이름표를 만들어 나눠주었다. 아이들은 제 이름표를 받아들고 "아네 아네 Aneh aneh (글자가 이상해요.)" 라며 자신의 한글 이름을 신기한 듯 쳐다보며 히죽 히죽 웃는 모습이 귀엽다. 나를 통해 한국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아이들을 보면 앞으로도 아이들이 모르는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작 품 명 World Friends Koica

촬영국가 에티오피아

작품설명 2010년 4월 아와사에 위치한 초등학교,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문화를 교류하고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낯설어 하던 아이들은 한 명 두 명씩 한국에 대해 알아가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까운 한국을 느낄 수 있었고 맑은 눈망울 안에 가득찬 미래의 희망을 보며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거리는 가깝게만 느껴졌다.



작 품 명 World Friends Korea

촬영국가 이집트

작품설명 동양인을 보면 항상 중국사람(치니)이냐고 물어보는 이스말리아 초등학생들에게 아시아에는 중국 외에 다른 나라인 한국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먼나라 한국에서 이집트로 파견된 코이카 봉사단원들이 이집트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지 홍보하였습니다. 저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100% 한국을 이해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한국에 대해 조금 다가서게 되었다며 앞으로 친구가 되자던 작고 귀여운 아이들이 진정한 한국 알림이의 초석이 아닐까요?



작 품 명 World Frineds Korea

촬영국가 캄보디아

작품설명 캄보디아 목끄라스 마을에 초등학교 1학년 과정만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한 분이시죠. 가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미술 수업을 합니다. 오늘은 World Frineds Korea란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작 품 명 힘바 아이들

촬영국가 나미비아

작품설명 2008년 12월부터 2개월간 아프리카 7개국을 종단하던 중 나미비아의 옵뽀우에 위치한 힘바마을에서 열흘간 워크캠프 활동을 하던 중 찍은 사진입니다.
힘바족은 나미비아와 앙골라 국경지대에 분포하는 민족으로 옥수수 재배와 염소, 소 등을 키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워크캠프 활동은 주로 힘바족 소똥집을 지어주거나, 체계적인 농작물 재배방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최근들어, 힘바족의 주거지역에 상권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힘바족들이 키운 소나 염소를 내다 판 돈으로 술을 사먹는 등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좋지 않는 문화를 배우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 품 명 폐허의 땅에서 피어난 자비의 인술

촬영국가 아이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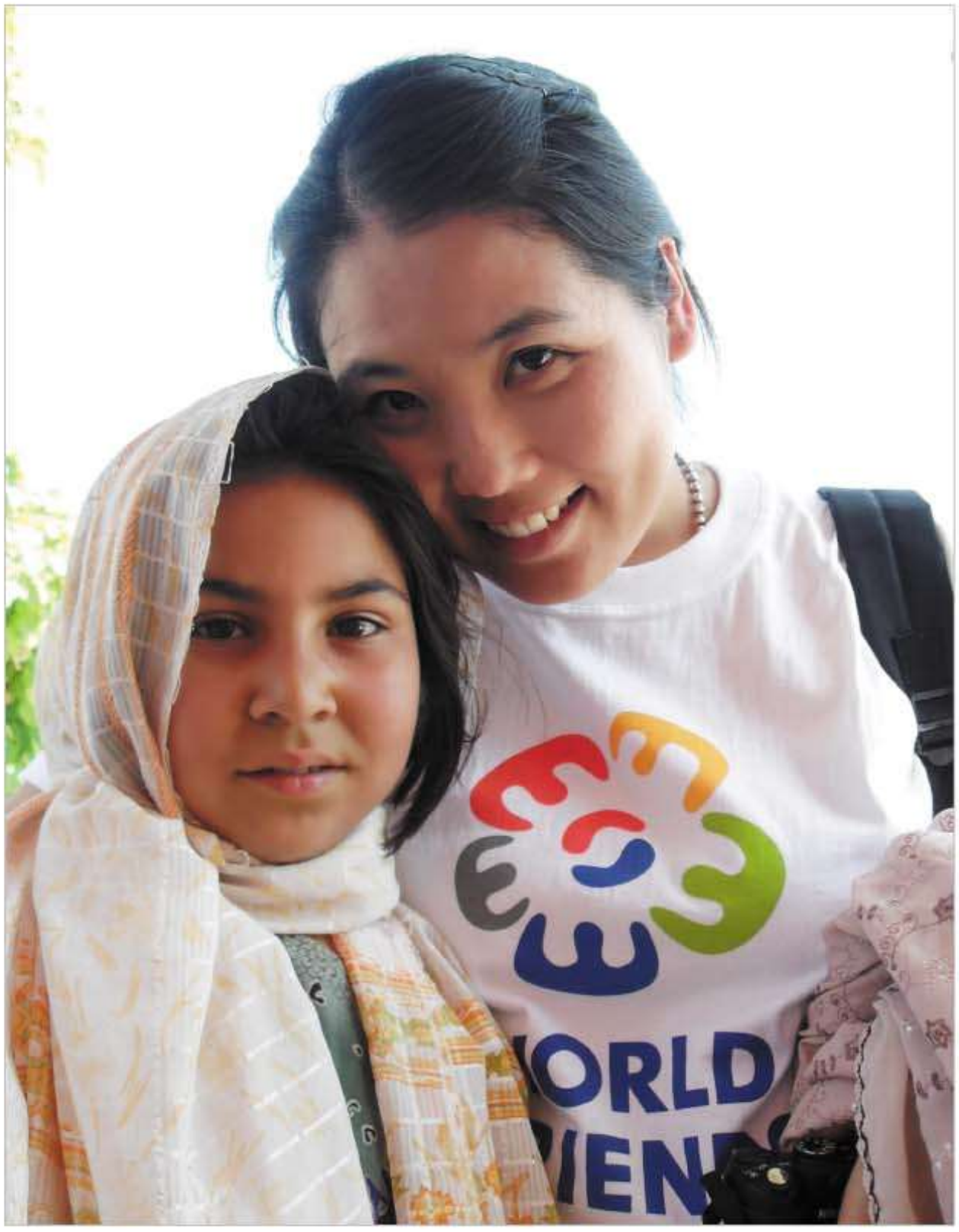
작품설명 의료진과 현지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30여 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은 5일 동안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인근 뽀뻰 지역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고통을 받는 아이티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자비행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비의 의술을 펼친 의료봉사단. 봉사단이 치료한 것은 그들의 육체적 상처만이 아니었다. 봉사기간 동안 봉사단이 치료한 주민은 총 1137명. 섭씨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200여 명의 환자를 돌봤다. 위험지역이라 다른 의료진의 발길이 없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진은 조계종 봉사단이 유일했기 때문에 의료봉사 활동이 펼쳐진 진료소는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봉사단의 활동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지의 관심도 높아졌다. 이곳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거의 병원을 찾은 경험이 없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아픈 곳이 있더라도 정확한 치료보다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염증이 발생해 상처를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환자들은 상처를 소독하는 선에서 대부분 치료가 끝이 났지만 생각보다 상처가 심각한 환자들은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근 큰 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기도 했다. 의료진은 조금이나마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작 품 명 눈높이 봉사

촬영국가 라오스

작품설명 어렸을 적에 의사선생님 안 무서워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오스도 마찬가지이다. 지중해 빈혈병을 앓고 있는 알리우. 우리 코이카 의사선생님은 환자 아이들에게 언제나 해맑은 미소로 눈높이를 맞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알리우 빨리 건강하게 완쾌하렴^^



작 품 명 내 친구

촬영국가 파키스탄

작품설명 파키스탄 코이카 단원들과 수도에 위치한 사이프루 빌리지에 방문을 했다. 이곳은 유아교육 단원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파키스탄 수도에서 가장 어려운 마을이기도 하다. 산 주변으로 마을을 형성한 모습이 꼭 한국의 달동네와 같은 곳. 이 곳에서 만난 12살의 "자밀라"는 무더운 날씨에 힘들게 봉사를 하는 단원들에게 물도 가져다주고 봉사하는 내내 우리의 멋진 길동무가 되어준 귀여운 꼬마 친구이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자밀라는 여러 번의 의상을 갈아입고와 다양한 포즈로 단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다. 얼굴이 닮아 친자매 같았던 박동희 단원과의 사진 한 장. 비슷한 행동에 동생이 아니냐는 질문에 "메라 아차 도스트해" 나의 좋은 친구라며 대답을 했던 자밀라. 귀국을 얼마 남지 않은 박동희 단원과의 마지막 사진이지만, 자밀라는 언제나 우리에게 파키스탄의 이름으로 기억될 좋은 내 친구이다.



작 품 명 코이카와 함께 하는 아이들

촬영국가 방글라데시

작품설명 지금 사진속에서 웃고 있는 예쁜 여자아이는 방글라데시 여자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앙리와 딴지나의 모습이다. 2010년 4월 5일에는 한국의 의복을 소개하는 수업이 있었다. 여느날과 다르게 방글라데시의 전통의상을 벗고(방글라데시의 여자들은 기성복을 입지 않고 '살로와 까미즈'와 '샤리'라는 전통의상을 입고 생활한다.) 코이카 단복과 모자,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학교 4년 앙리가 코이카 모자를 쓴 후, 유치원생인 딴지나를 안고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사진을 찍기 직전, 딴지나의 얼굴에 코이카 홍보 스티커를 붙여주자 너무 좋아하며 해맑게 웃는 모습이 예뻤다.
기성복을 접하기 힘들어서인지, 코이카 단복을 입고 모자를 써보면서 매우 신기해 하였다. 이날 한복의 인기는 최고였으며, 한국의 전통 옷이 너무 예쁘다며 서로 입어보기에 바빴다.



작 품 명 아이들을 위한 한국 선생님들의 교육봉사

촬영국가 캄보디아

작품설명 캄보디아의 뚜로빼앙스노 마을에서 2010년 1월 8일부터 13일까지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상수도와 전기가 없는 그곳에 아이들에게 한국이라는 경험을 전해 주고 싶었습니다. 사진은 마을 아이들에게 음악교육, 체육교육, 보건교육, 미술교육을 했던 사진들입니다. 아이들은 놀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교육을 통해 한국을 알아갔습니다.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 손잡고 서로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첫 양치질을 배웠고, 처음으로 태권도를 해봤습니다. 각자 예쁘게 염색한 수건을 머리에 쓰고, 한국 동요에 맞추어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손잡고 아름다운 마을에서 함께 뛰어 놀았습니다. 봉사하는 시간동안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은 감동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뜨거운 감동. 그 감동이 사진을 통해 전해졌으면 합니다.



작 품 명 Incredible India

촬영국가 인도

작품설명 저희는 대학사회봉사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조직된 18기 하계봉사단으로 인도 뱅갈로에 보름간 봉사를 다녀온 대학생입니다. 저희의 주된 봉사일정은 비라산드라라는 뱅갈로의 낙후된 지역에서 오전에는 고아원의 보수공사를 하였고 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었습니다. 오후에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허락을 받아 초등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영어, 미술, 과학, 체육 등을 조를 나눠 가르쳐 주었고 조금이나마 한국을 알리고 아이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교류축제를 마련하여 마을 사람들에게는 한국의 문화를 알림과 동시에 우리 봉사단은 인도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학교 운동회에서 새로운 놀이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추억을 쌓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이벤트를 벌여 동네 주민들의 잔치로 이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때 운동회 사진으로 장애물 달리기를 할 때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장애물 달리기처럼 흰 밀가루에 사탕을 넣어 찾아 먹을 때의 인도 아이들의 행복한 순간과 운동회를 돕고 있는 봉사단원들의 행복한 마음이 동시에 담아져 있는 만족스러운 사진입니다. 우리의 잊지 못할 2009년도 여름을 이 사진에서 조금이나마 추억해봅니다.



작 품 명 시골병원에서 만난 KOICA

촬영국가 베트남

작품설명 베트남 중부 광찌 지역은 외국인이 전혀 살고 있지 않은 베트남 중에서도 오지에 속합니다. 농업기반의 생활을 하는 시골입니다. 이곳 빈링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현지인 의료진과 함께 간호사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만실, 수술실, 산부인과 병동에서 현지인 산모들의 분만 전후 간호 및 신생아 간호 등의 모자보건 간호활동과 현지인 의료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신생아 제대(탯줄)간호 시행 및 제대 간호에 대한 현지인 간호사 교육 중인 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작 품 명 예쁘게 그려주세요!!

촬영국가 인도네시아

작품설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천막학교에서 교육과 운동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운동회를 하던 날 아이들에게 페이스 페인팅을 해 줄 때 모습입니다. 처음 해보는 페이스 페인팅이 신기한 듯 줄지어 기다리는 많은 아이들의 얼굴에 그림을 그려주었지만, 이토록 작은 일에도 크게 좋아해주는 아이들 덕분에 저희도 힘든 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같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 쪽 볼엔 태극마크가 또 다른 한 쪽 볼에는 인도네시아 국기가 그려진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뿌듯함과 함께 짧은 시간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는 듯한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오른쪽 가슴에 있는 태극기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무겁기도 했던 평생 있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작 품 명 사랑의 집짓기

촬영국가 중국

작품설명 2009년 11월 15~21일까지 메콩강 유역 5개국에서 열린 지미카터 특별건축프로젝트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메콩강 유역(태국 치앙마이를 비롯, 캄보디아 프놈펜, 라오스 비얀트얀, 베트남 하노이, 중국 쓰촨)의 빈곤층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인데, 코이카에서 30만 달러를 지원했다. 나는 이 중 중국 쓰촨 지역 자원봉사로 지원했다. 지진이 일어나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다. 집이 완성된 후에 입주하실 주민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우리와 이야기하며 웃음을 지을 때는 우리의 작은 사랑의 손길이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일주일 동안 몸은 힘들었지만 벽돌과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작 품 명 KOICA, 다름을 넘어 태권도를 세계로

촬영국가 이집트

작품설명 2009년 9월, 국외휴가 중 동기 한혜진 태권도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이집트 '아스완' 지역을 방문하였다. 무더운 9월의 이집트, 이집트 남부에 위치한 아스완은 다른 지역보다 그 더위가 심하다. 덕분에 태권도 수업은 항상 이른 오전이나 늦은 저녁-내가 사진으로 담은-때 이루어졌다.

이집트는 전형적인 이슬람 국가이다. 우리에겐 이질감이 강한 이슬람 문화. 하지만 태권도에 흠뻑 빠진 이집트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김새, 특히 땀범벅이 되면서도 여자아이들이 항상 쓰고 있는 베일을 보며 어쩔 수 없는 문화의 차이를 실감하면서도 그들이 내뱉는 '하나! 둘!' 기합소리는 사진찍는 내내 그 다름을 넘어선 친밀감을 나에게 느끼게 해주었다.

태권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 서로의 생김새, 문화, 배경은 다를지언정 그것을 뛰어넘어 사람을 하나로 묶는 힘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KOICA, 다름을 넘어 태권도를 세계로! 다름을 넘어 우리나라를 세계로!



작 품 명 라오스 매래덱병원 의료봉사

촬영국가 라오스

작품설명 라오스 매래덱병원 주관 이동진료 및 치아 위생교육을 진행하였다. 매래덱병원 내 KOICA에서 지원해준 수돗가에서 라오스 새해(4월 14~16일)를 맞이하기전 아이들에게 선물로 준비해간 물총으로 장난 중인 아이들의 모습이 귀엽다.



작 품 명 태권! 태권도!

촬영국가 인도네시아

작품설명 2010년 1월 29일 인도네시아 반둥지역의 빵알렝안 시르나사리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 태권도 교육을 하는 사진이다.
다음날에 있을 한국-인도네시아 친선문화교류 페스티벌 무대에서 그동안 배운 품새 중 가장 기본적인 '태극 1장'의 시범을 보일 아이들은 열정적으로 잘 따라하고 반복적으로 동작을 외우고 있다. 고온의 날씨에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아이들을 데리고 땡볕에서 태권도 수업을 하느라 땀이 나고 더위에 지쳐 쉬는 시간을 주었더니, 남자아이들이 우리(선생님)를 흉내 내면서 자기들끼리 태권도 동작을 연습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
'태권! 태권도!' 소리는 또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귀여운 아이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배운다. 태권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수련하고 있기도 한데 태어나서 외국인을 처음 본다는 시르나사리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왼쪽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태권도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동작을 가르쳐줄 수 있었던 건 내게 큰 행운이었다.



KOICA를 소개합니다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는 1991년 4월 정부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KOICA는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업분야

KOICA는 원조를 받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가장 효과적으로 이들 국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아래 7개 분야를 선정하여 대외무상원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육 / 경제성장 및 빈곤퇴치의 기본조건

취학연령 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성인들이 기본적인 글과 숫자를 읽을 수 있으며, 미취업 인력들에게 직업훈련을 받게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학교 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교육기자재 제공, 정책 및 제도 개선, 교과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HIV/AIDS 및 전염병 퇴치

의료보건 지원을 통해 산모 및 영유아 사망률 감소, 전염병 예방분야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모자보건, 가족계획 및 식수개발에 있어 많은 개선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보건정책개발과 의료시설 및 연구기관 건립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행정제도 / 정부의 책임성 및 거버넌스 역량강화

공여국 정부의 효과적인 빈곤감소 및 경제개발 전략을 이룩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의 민주발전 경험 및 정보 역량강화 분야의 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건전한 공공제도 구축 및 효율적인 행정능력 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해 왔습니다.

농어촌 개발 /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개선

우리가 1970년대 실제 활용한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도상국 농어민들의 생산성 및 소득 향상을 위해, 기술이전, 정책 및 제도구축, 농어촌지역 기반시설 수립 등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 정보격차 해소

정보격차 해소를 목표로 우리나라의 정보기술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함으로써 기반시설 구축, 정책 및 제도개선,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정보통신 기술 발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 및 에너지 / 사회간접시설 확충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수원국의 산업개발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사회 기반시설 중 전력공급시설, 도로 및 철도 건설 부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재정과 기술적인 투자 부분의 문제들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 및 기타 /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조성

개발도상국에서 환경오염은 빈곤층에 매우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KOICA는 환경보호지침의 수립과 사업 대상국들의 환경오염관리능력 강화와 지구환경보전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심사

총 2,266점의 작품에 대해 한국국제협력단 직원으로 구성된 예비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선적으로 작품을 선별하고 성남훈 교수(사진작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한 본심사위원회에서 최종작품을 선정하였다.

▶ 시상식



제1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진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2010년 4월 23일 경기도 성남시 KOICA 본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최하고 외교통상부, 신한은행, 아시아나항공, 웅진코웨이, 포스코건설, SK C&C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World Friends Korea"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을 기념하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었다. 개발도상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한국의 원조사업사진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진을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를 받아 총 2,266점의 작품이 응모되었다. 최우수상(외교통상부장관상)은 이정임 씨에게, 우수상(KOICA이사장상)은 김수완 씨에게 돌아갔으며 후원기업상, 심사위원상, 입선 등 총 32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제1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진공모전 전시회

1) 성남시청 전시회 : 2010. 05. 10 ~ 05. 20
2) 포스코건설 전시회 : 2010. 06. 04 ~ 06. 14
3)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주민센터 전시회 : 2010. 06. 14 ~ 06. 25
4) '2010 코삭 국제 보건 캠프' 고려대 전시회 : 2010. 07. 31
5) 성균관대 SUNGGKYUN GALLERY 전시회 : 2010. 08. 02 ~ 08. 16
6)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전시회 : 2010. 09. 13 ~ 09. 17
7) 마포구청 전시회 : 2010. 10. 25 ~ 10. 28
8) 한국항공대학교 '천원의 기적' 전시회 : 2010. 10. 29 ~ 10. 30























"제1회 KOICA 사진공모전 작품집" 홍보실 편집후기

제1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World Friends Korea 사진공모전은 우리나라의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기념하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올해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사진공모전의 진행을 맡은 홍보실 직원들은 "어떤 작품들이 얼마나 응모가 될까?" 하는 기대 반 우려 반 속에서 3월 29일부터 2주간 사진을 공모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첫 사진공모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전에는 2천점이 넘는 작품이 응모되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을 담은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과거에 "받는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이제 "주는 나라로" 발전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고, 작업 내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이 가득했던 사진공모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제1회 한국국제협력단 World Friends Korea 사진공모전 작품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진공모전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사진공모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0년 11월

KOICA 홍보실

KOICA 해외봉사단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합니다

KOICA
한국국제협력단
461-8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18
Tel 031.7400.114 Fax 031.7400.655
www.koica.go.kr